

보도일시 | 2026년 4월 23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울산고래축제 실무TF팀 첫 회의 개최

- “성공적 축제 추진을 위한 본격 준비 돌입” -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10월 개최 예정인 ‘제30회 울산고래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28일(화)에 실무TF팀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축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단 관계자를 비롯한 구청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축제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3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고래축제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방향,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전략,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운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행 과제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재)고래문화재단은 향후 실무TF팀을 중심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완성도 높은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고래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0회 울산고래축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올 10월15일(목)~

10월18일(일) 4일간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3.
